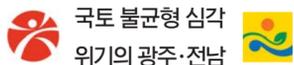


뿌리깊은 차별·불균형 ... 정치력 키워 바로잡자



〈2〉 지역 정치권 힘 모아야

광주·전남이 더 이상 낙후되지 않고, 그동안의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분발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과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 지원은 정치적인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과 보수 정권에서 각종 국가 정책과 예산 등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아왔다. 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사실상 군부독재와 보수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지지 기반이 되면서 차별은 더욱 심화됐다. 이 때문에 도로 뿐

보수정권서 정책·예산 소외, 민주당정권서 불균형 커져 민주당 텃밭 광주·전남, '캐스팅 보트' 충청에 또 밀려

만 아니라 철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SOC)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는 등 지역간 불균형 격차는 커졌다.

호남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26년이나 늦게 4차선으로 확장됐고, 호남고속철도 개통도 경부고속철도에 비해 11년이 늦었다.

하지만, 군부독재와 보수정권이 아닌 호남 지지를 기반으로 한 민주당부가 들어섰음에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해소없이 현 정부가 균형발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동안 불균형 격차가 심해 낙후된 상태였던 광주와 전남은 여전히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

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과 대전·충남 지역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충북 오창의 방산항공가속기 유치 등 현 정부의 주요 국정사업 지원이 충청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광주·전남의 위기감은 더해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정치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광주·전남은 여전히 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와 여당으로서의 광주·전남 표심을 '집토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항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 온 충청권의 민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충청권 인구가 늘면서 지역구 국

회의원 의석 수가 역전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광주와 전남지역의 국회의원이 18명(광주 8명·전남 10명)으로, 대전·세종·충남 17명(대전 6명·세종 1명·충남 11명)에 비해 1명이 많았다. 하지만,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는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각각 1명씩이 더 늘어나면서 20석이 된 반면 광주와 전남은 여전히 18석에 불과하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18명의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인데다 대다수가 초·재선이 다 보니 강력한 리더십이나 정치적 대중성이 약해 중앙 정치권에서 호남 정치력 복원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이 농도(農道)라는 이유로 전남지역 대다수 의원들이 국회 농해수산위원회에 배정된 경선에서 항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 온 충청권의 민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20대 국회에선 국민의당과의 경

쟁 구도로 인해 민주당 차원에서 호남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지금과 같은 민주당 독식 구조 아래에선 지역 현안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의원들이 뜻을 한데 모으고, 이를 적극적인 연대로 이어갈 경우 민주당 내에서 구심력을 확보해 세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기반으로 호남 정치력을 키워간다면 광주·전남의 주요 현안사업과 뒤처진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충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현 정부의 모토가 지역이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전 영역에서 지역이 소외받지 않고,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분야별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영암 출신 김세영 메이저 한 풀었다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

영암 출신 김세영(27)이 처음으로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정상에 올랐다. <관련 기사 22면> 김세영은 지난 달 LPGA 투어 ANA 인스피레이션에서 우승한 뒤 한 달여만에 전해진 두번째 우승이다.

김세영은 12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뉴타운 스퀘어의 애러니링크 골프 클럽(파70·6577야드)에서 열린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총상금 430만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쓸어 담아 7언더파 63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66타를 기록한 김세영은 박인비(9언더파 271타)를 5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 우승 상금 64만 5000달러(약 7억4300만원)를 거머쥐었다.

김세영은 지난해 11월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이후 11개월 만에 LPGA 투어 대회 승수를 추가, 통산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그의 4라운드 성적인 63타는 이 대회 18홀 최소타 타이 기록이며, 최종 합계 266타는 1992년의 벅시 킹(267타)보다 한 타 적은 대회 72홀 최소타 기록이다.

이번 김세영의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올해 LPGA 투어에서 13개 대회 중 4승을 합작했고, 이 중 지난달 ANA 인스피레이션의 이미림(30)에 이어 메이저대회 2연승을 수확했다.

/유연재 기자 yjyou@연합뉴스

광주시장·전남지사 23일 만나 행정통합·밀린 현안 논의할 듯

이웅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르면 오는 23일 만나 이 시장이 제안한 행정통합과 함께 밀린 현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지난 9월 10일이 이 시장이 전남도에 행정통합을 제안한 이후 김 지사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며 지역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 지사가 10월 안에 이 시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 광주시 국정감사와 전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가 끝나는 22일 바로 다음날인 오는 23일께 이 시장과 김 지사가 만남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가 협의의 안전 등에 이점을 보이고, 이 시장과 김 지사의 회동이 계속 연기될 경우 사·도민의 우려도 커진다는 점도 양측의 만남을 촉구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다만 이번 회동은 이 시장과 김 지사의 협의의 안전, 합의안 등을 두고 계속되고 있는 물밑 협상이 성사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선 이 시장은 12일 "김 지사와의 만남을 기다리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

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기자회견에서 차담회를 하고 "(김 지사와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행정통합과 관련해 어디가 더 이롭냐를 떠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공동 대응, 풀리지 않는 광주군 공항 이전 문제 등을 시급한 논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특히 "지난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혁신도시를 승인했다"며 "2차 이전이 '제로섬'인 상황에서 어디가 더 가져가면 광주·전남에 덜 오게 될 테니 우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충청은 수도권과 매우 가깝고 공공기관, 연구수도 집중됐는데 또 혁신도시가 됐다"면서 "다른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1차 이전 때처럼 절실함을 갖고 상생 차원에서 광주·전남이 공동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최근 국방부와 광주시가



거리두기 1단계 ... 즐거운 동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된 12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공원에서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원생들이 오랜만에 등원한 친구들과 함께 바깥에 나와 비눗방울을 터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함께 만들어 전남 지자체에 배부한 군 공항 이전 설명 자료를 일부 지역에서 반송한 것을 두고는 "다분히 감정적 대응"이라며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상생 차원으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행정 통합은 철저한 준비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의회, 교육계, 시민단체, 각계 인사 등의 의견을 들어 (이 시장과) 만나야 할 것"이라며 "비전이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

다. 이어 "가장 먼저 통합에 나선 대구·경북 역시 실행 단계에 이르면서 지역 내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대구·경북 간의 견차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NEW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2weeks
고함양 고도도 레티놀인 농기질
부작용 위험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 40~50세 성인 여성 48명 (대상 2019.09.16~10.17 지면) | 피부임상연구센터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